

교실 속 돌발행동 집중 취재!  
욕설과 허위사실 유포,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?

#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가이드

-중학생용-




교육부



한국교육개발원  
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



A중학교에서 송 군이 선생님께 욕을 하고 책을 던진 일이 벌어졌습니다.  
송 군의 행동으로 친구들과 선생님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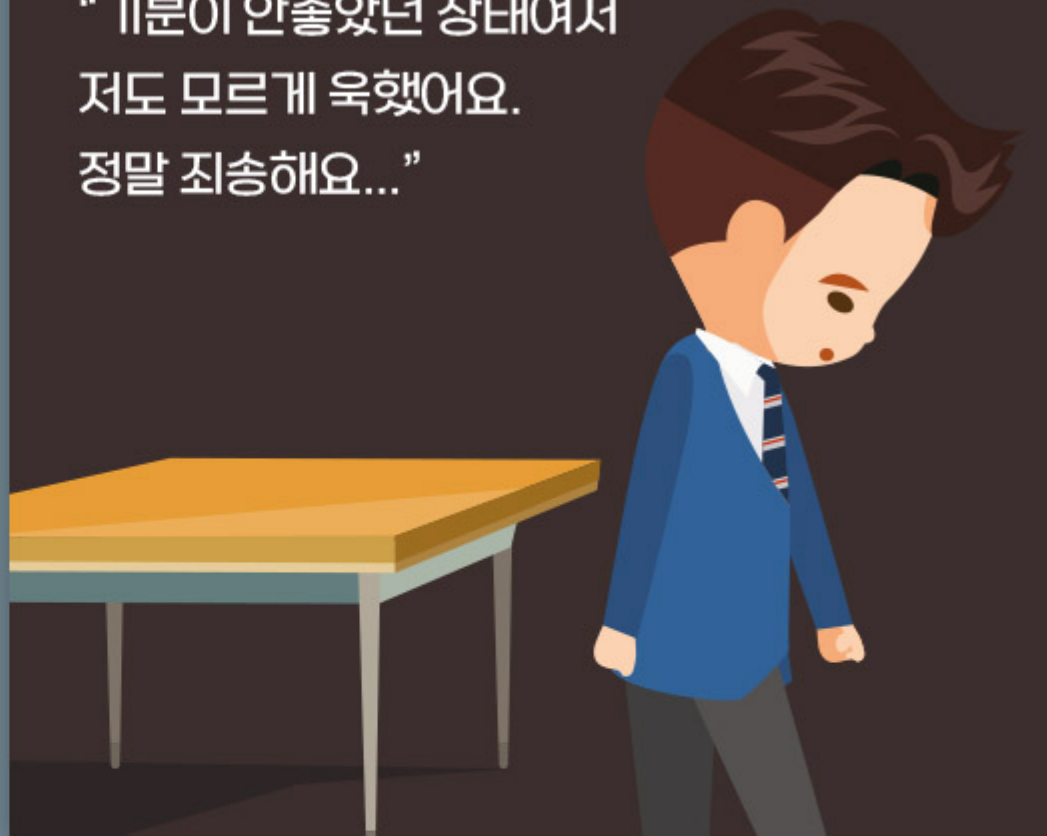


“학생들이 돌발행동을 하면  
당황스럽고 자존심도 좀 상해요.  
이런 일 후에는 가슴이 두근거리  
잠도 잘 못 자요.”

“다음 주가 시험인데,  
수업을 방해하는 친구들 때문에  
진도를 제대로 못 나가서 걱정이예요.  
선생님도 많이 속상하시고  
힘드실 것 같아요.”



“기분이 안좋았던 상태여서  
저도 모르게 욕했어요.  
정말 죄송해요...”



다행히 송 군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.  
송 군에 대한 조치는 **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**될 예정입니다.  
반성과 사과를 했다는 점이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.





속보 전달드립니다!

C중학교에서 강 군이 **온라인 학습 시간에 선생님 몰래** 수업 영상을 편집하여 유포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.

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.



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동의 없이  
선생님의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**허위 사실을 유포**하면,  
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거쳐 **전학, 퇴학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**  
**형사상의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.**

앞서 본 교육침해행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 
예방에 도움이 되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.



##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법 1

### 3초 멈추기

화가 나는 상황에서는 잠깐 멈추고,  
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쉽니다.  
잠깐 멈추고, 숨을 크게 들어 마시고  
내쉬는 것 자체로 마음이 많이 차분해집니다.

##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법 2

### 메시지로 말하기

친구들이나 선생님의 상황을 살펴보고  
메시지로 말합니다.  
'OOO 해서 제 마음이 OOO해요'라고  
표현하는 거죠.



학교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같이 배우고 생활하는 공동체입니다.  
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때 선생님과 학생 모두가  
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.^^